라이브말씀과 립씽크

(눅5:33-39)

33.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라이브말씀과 립씽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라이브 말씀과 립씽크'
작년 5월엔가 한 국회의원이 립씽크 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한 모양인데, 그 뒤로 그 법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기각되어 버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면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립씽크 전체를 다 금지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 내고 들어간 공연장에서 그 무대 위

에서 공연하는 가수들이 립씽크를 한다는 것은 관객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공지를 하든지. 립씽크가 포함되어 있는 콘서트라고 공지를 해야지, 그런 공지 없이 그냥 그 콘서트의 티켓비는 다 그대로 받아먹고는 무대 위에서는 립씽크를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지요.
립씽크라는 게 뭐에요? 립씽크로나이즈로 이 노래가 나갈 때 해당되는 가사 부분에서 맞추어서 그 가사를 소리 내는 입술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TV에서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에 나올 때, 입술만 노래 진행과 맞추어서 내는 것, 동시에 입술을 움직인다, 그게 씽크로나이즈 라는 뜻 아닙니까? 입술을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핸드씽크라는 말이 있어요.
라이브 공연장에서 베이스 기타를 든 사람이 실제로 기타를 손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연주하는 척만 하는 것 이게 핸드씽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얘기를 하자면, 바디씽크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방송과 관계에 대해서는 립씽크라는 말, 핸드씽크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바디씽크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 바디씽크, 립씽크, 핸드씽크. 이것을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금지를 시키셨습니다.
'그거 안 된다. 신앙에서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그런데 죄인과 의인의 개념이 바리새인과 다른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조항에서 발전되어진 관습과 규정, 이것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가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설사 너희의 행동이 율법에 맞는다 하더라도,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외의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담을 수가 있다.'
'마음에 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데도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야를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불리하다.'
윤리적인 행동을 했고,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을 느끼지 못해서, 모시지 않고 있는 것을 느껴서, 스스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정

말 금상첨화이지요.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행동이 윤리적이고 지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는 세상의 돈과 건강과 인기와 내 가족과 하나님 이외의 모~든 중요하다는 것들을 가득 담고서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크~게 불리하다 이겁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의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 이거에요.

이 이야기 끝에 더욱더 이야기를 내용적으로 심화 시키시면서 금식이야기를 받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혼인집에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하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날 그 결혼 피로연 잔치에서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오직 신랑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라는 얘깁니다.
김 대리가 결혼합니다. 결혼식장에 회사 직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최 과장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박 부장님의 사모님이 그만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소곤소곤 전해집니다, 회사 직원들한테.
'이런, 어떡하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
자,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을 하고 있는 김 대리의 결혼식 피로연 잔치자리에서 통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 통곡을 해야 될 거면 그 잔치자리를 떠나야 되지요.
잔치자리에 있는 한 내 모든 행동의 기준은 신랑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주님은 금식하지 않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금식을 왜 하느냐, 금식을 왜 하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밥 먹고 내가 사는 일보다 급하다, 하나님과 멀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신앙의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왜 금식하자고 말하느냐?

너희가 금식하자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실제 하나님이 가깝다 안 가깝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멀어서 가까워지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있는 피로연에서 신랑과는 관계없이 행동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는 상관없이 너희가 정한 규정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것이라고 해 놓고는 그 규정을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
실제의 하나님과 내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가까워졌음을 확인하면서 금식을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규정상 금식하라고 돼있어서 금식한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헌 옷이 구멍이 났다고 새 옷 조각을 떼어서 헌 옷에 붙이게 될 경우에 낡은 천 조각의 텐션과 새 천 조각의 텐션이 다른데 갖다 붙였다가는, 이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할 때에,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헌 옷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경우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압력이 팽창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그 가죽이 터져 나간다.
다시 말해, “내가 새 옷인데,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말이 내가 너희들의 규정을 맞춰서 행동하기를 요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한 규정과 원칙과 너희들의 확장 시킨 율법조항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라,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따라갈 것을 거절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과 율법조항, 발전시킨 율법조항과 규정과 관습과 생활원칙,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시켜 주고, 돈을 주고 있고 형통하게 해 주고 존경을 받게 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주님으로서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 행동을 맞추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하셔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라이브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라이브로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이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규정을 갖다 들이댑니다.
왜 이대로 움직이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너희는 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마음속에 안으로 모셔 들인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바대로 손발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주님으로서는, 당신이 지금 안에서 라이브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밖에 외부에 주님 외부에 제시되고 있는 그 조항과 규정들을 따라서 움직여 가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브로 말씀하셔도 물론 율법 십계명이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님 몸 안에서.
그러나 주님이 다른 것은 지금, 쓰여 진 율법을 보고 행동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디씽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디씽크, 신앙에만 있을 수 있는 말.
바디씽크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체라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뭡니까? 의견을 갖고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속에 모셔 들인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에 모셔 들일 수 있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따라 움직여 가는 것, 이게 바로 라이브에요 라이브.
그리고 주님의 행동은, 말씀하시는 라이브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같이 움직여 갑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장갑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안에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 있고, 이 세상의 인기가 들어와 있고,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는 그런 기득권에 대한 애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행동은 율법조항과 하나님과 연관되어졌다고 선민으로 하여금 믿게 하여 만든 관습과 규정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을 따라 움직일 때, 이게 바로 바디씽크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진정성이 없습니다. 가수가 립씽크를 할 때, 저 가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스튜디오에서 기계음과 섞인 노래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소리로 아~ 하면 기계로 조작해서 아아아~ 하고 울리게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바이브레이션을 기계로 집어넣고 다~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틀어놓고 그 음악이 움직일 때 가수는 춤을 추면서 가수는 입술만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요즘 가수들의 특징이 가창력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나와 가지고, 서로 고음대결을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뭐 어느 가수의 굴욕 해 가지고 인터넷에 꼭 그게 기사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사회자보다도 음이 안 올라가요.
그저 얼굴 모양으로 춤추면서 가수 노릇을 하느라고, 전부 립씽크로.

이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 원칙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놨지마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라고 바리새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렇게 충성하라고 해 놓고 선민들이 충성할 때에 자기들을 존경하는 그 존경을 먹고 싶어 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립씽크라는 거예요, 설교가 립씽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핸드씽크, 구제를 합니다, 십일조를 냅니다,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순복음교회에서 좋아하는 식으로 장래의 축복을 위한 심기, 투자하기 이게 다 핸드씽크라는 거예요, 다~ 핸드씽크에요, 진정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닌 채로 하나님과 연관 되었다고 외쳐대면서 지키는 모든 규정들이 다 이게 립씽크이고 바디씽크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교회에 충성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참! 아직도 이런…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음에 하나님 한분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들 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교회 부흥이 마음에 들어와 있고, 교회 건축이 들어와 있고, 재정의 넉넉함이 마음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교를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분명히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녹화되어진 글자가 쭉~ 필름처럼 돌아갈 때에 거기다가 입술을 맞춥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전달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충성하고 십일조 헌금하라.'
주님께서도 십일조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녹화 되어서 쭉~ 나갈 때에, 교회 재정이 넉넉해져야 된다고 하는 마음속에 담긴 것을 숨긴 채로 립씽크가 나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이 감사가 넘쳐 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당신이 사시면서, 진정성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있으려면 십일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헌금 갖고 안돼요, 주일헌금 갖고, 십일조라야 되지.
교회건축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집까지 팔라 그러고, 집이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전세로 바꾸라 그러고, 전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월세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부흥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다 바디씽크이고 속임수이고 사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십일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라이브로 말씀하신 상태에서 내용이 예배당을 건축 하자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라이브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라이브로 말씀하신 것인지,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바디씽크나 립씽크를 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훑어 내려가면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로 말씀하시는 상황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에서처럼, 내가 가장 자신이 있다고 여겨지는 전문분야에서 조차도 '나는 답을 낼 수 없는 자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 세상에 그 어떤 삶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답을 낼 수 없는 자다, 그러므로 죄인이다.
그 죄인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병환자처럼 마음이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회의 영역에 대해서도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답을 낼 수 없으니까 내 삶의 영역으로부터 나병환자가 격리되듯이 내 마음이 격리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영역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붙잡고 씨름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중풍병을 고치러 왔다가 중풍병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예수님 자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쇄도해 들어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쇄도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의 총화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말씀이시고 동시에 말씀의 총화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집중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의인과 죄인의 얘기에서 나온 것처럼,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세상에 대해 죽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넘어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이 사회 속에 있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께서 하늘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증거로 평강과 이 세상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가난하건 부자건 아프건 안 아프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신 증거.
그리고 배부르게 되고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라이브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라이브로 전해질 때에,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제 립씽크도 핸드씽크도 바디씽크도 없고, 오직 라이브만 하나님의 라이브 말씀과 하나님의 라이브 행동만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열거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거쳐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주관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제 욕심대로 행동하고 말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절대로 안돼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은.
내가 베드로와 같은 답이 없음을 깨달은 죄인인가 그리고 그렇게 죄인이 진정으로 고백 된 사실이라면, 내 마음을 나병환자처럼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서, 나는 어느 것에도 만지면 안 되는 죄의 나병환자인 것을 인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가야 될 곳은 주님의 십자가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로 가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하신가?
배불러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게 없는 것인가?

이게 확인 된 뒤에 라야, 그때부터 그 시점이후부터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과 말씀이 하나님의 라이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다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
그리고 우리 주관성의 오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립씽크 핸드씽크 바디씽크를 금지하셨습니다.
규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라이브로 말씀하심을 따라 행동하며 생각하며 말하며 사실 수 있는 하늘의 아들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더 이상 율법의 문자 규정 원칙대로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와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게 요구하는 관습과 사회적인 규칙 원칙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며,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